민족적 명절 열 여섯 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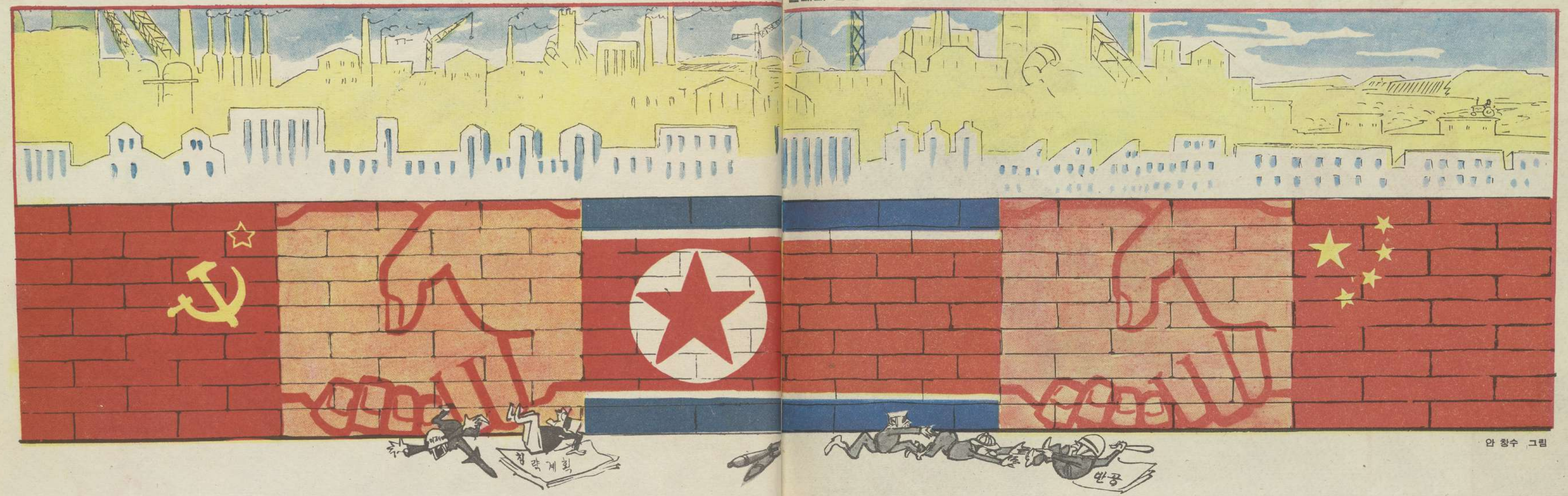
화살

1961년 8월호 (145)

박 승히 송 시엽 그림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AUG 27
Copy 1962

위대한 친선 불패의 동맹



안 창수 그림

금성철벽

로 철

당황 망조한 백악관—침략과 전쟁의 소굴에서….

—중앙 정보국장! 당, 당신,

북조선이 쏘련, 중국과 동맹 뭇는다는 정보, 미리 탐지 못했단 말입네까?

—네, 저… 일이 좀 분주해놔서…

—쳇! 《케네디가 너무 경솔하다. 개인 독재가 세다, 뢰물을 좋아한다》 하는 따위, 시시한 정보에는 눈 뒤집혀 돌아 다니고 이런 알맹이 정보는 다 놓친단 말입네까? 아니 그래, 알렌. 덜레스씨!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 언제 《전략적 문제》 십여가지 결론 못준일 있습네까, 앙?

—아, 아니, 그 그건 수'자상 착옵네다.

…….

홍! 그럼 내가 돈 1만 8천 딸라, 부란데 다섯 잔 받아 먹고 버거를 《대한 민국 대사》로 동용했다는 정보도 《수'자상 착오》옵습네까?

—아, 아니, 그, 그건 《대한 민국 대사》가 아니라 타이 《대사》에 관한 이야기…

—걷어 치우시오!

케네디는 불그락푸르락하며 얼굴을 돌렸다.

—국방 장관!

—네, 소인 맥나마라, 아까부터 여기 대령하고 있삽네다, 네.

—당신은 아마 이 정보, 미리 알고 있었겠지, 응?

—황송하옵네다. 각하….

—황송하다니!?

—네, 저… 장례식에 참가하느라고 그만…

—장례식?

—네, 저… 각하께서는 휴이트. 덴사사라는 우리 비행사 알고 계시옵는지…?

오! 조선 전쟁 때 북조선에 폭탄, 나팜탄, 세균탄, 제일 많이 던진 우리 《공군 영웅》 말입네까? 지금도 《한국》에 있습네까?

네…. 헌데 그 《영웅》이 총에 맞아 죽,죽었습네다.

—총에 맞아서? 《한, 한국》 사람 총에?

—아니올시다. 자기 아들놈 새총에…

—새총?

—네,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부부 싸움, 한창 하고 있는데 원래 아들놈이 제 어미 편이 돼놔서 그만…

에잇, 집어 치우시오! 《한국》에 가 있는 우리 미군 《영웅》들, 모두 그 따위 무골충들 뿐입네까? 북조선은 금성 철벽과 같이 강해지고 있는 데 그놈들은 술이나 처먹고 가정 싸움이나 하고 코흘리개 새총에나 맞아 죽고… 에잇!

—그, 그래서 대통령 각하! 본관 생각에는 미군 《돌격》 사단 한 개 더 《한국》 보내서 군사 분계선에서 소동 더 일으켜 볼까 하옵는데…

—흥! 큐바에서 혼비 백산하고 라오스에서 골탕 먹고 지금 남부 월남에서 뭉개고 있는 당신의 그 《백전 백승》 사단 말입네까!? 군사 분계선에서 소동 일으키는 첫 날에 분명 대가리가 깨지고 말겠네…

—그렇지 않으면 각하! 일본 《자위대》, 남조선에 끌어 들여서 《국부 전쟁》 한바탕 일으키면 어떠 하올지…?

—나 역시 그 생각 간절하기는 한데 원래 일본 《사무라이상》들이라는게 김 일성 장군의 말만 들어도 예'날부터 벌벌 떨기만 하는 주제에다가 지금은 북조선이 발전하였구, 그 우에 쏘련, 중국과 동맹을뭇구…그러니 남조선에 끌어 들이기는커녕 부산에 발 붙이는 첫 날에 분명 대가리가 깨지고 말 것이란 말야……

하고 케네디, 알렌. 덜레스, 맥나마라가 모두 두끌을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때 국무 장관 러스크가 무슨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 왔다.

—오, 미스터 러스크! 나 당신 매우매우 기다렸습네다. 그 무슨 좋은 소식 있습네까?

—오, 대통령 각하! 매우매우 좋은 소식 있습네다! 《대한 민국》의 미국 방문 《친선사절단》, 나와 만나면서 이거 대통령에게 드려달라고 선물 놓고 갔습네다. 매우매우 반가운 소식, 헤헤

—오! 방금 나, 시끄러운 문제 때문에 골치 매우매우 아픈 때 그것 참 훌륭한 소식입네다. 대체 어떤 선물입네까?

최고급 반도체 라지오!

—라지오? 그것 《대한 민국》에서 만듭네까?

—노, 노. 외국 것 사다가 서울 장사'군 《대한 민국》 상표 붙인 것입네다. 전기 없어도 팡 팡 소리 잘 나오는 반도체 라지오!

—헤헤, 그거 참 좋습네다. 어디 좀 들어 보십시오…

대통령, 국무, 국방 량 장관, 중앙 정보 국장놈들이 이마때기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는데 이윽고 라지오에서는 그야말로 팡 팡 우렁찬 소리가 흘러 나왔다.

김 일성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조국 귀환을 환영하는 30만 평양 시민들의 환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한다!

—으악!

아—ㅅ! 하, 하느님…

네명의 날짐승이 질겁하여 벌렁 넘어지며 서로 이마를 찧고 다시 십자가를 그었다.

—아, 아멘

붉은 태양 아래 록음이 우거지고 백화 만발하다
원 광수 그림

위대한 태양아래

시 안충모

수 천년 수만 년
아득한 태고로부터
하늘의 태양은 따스한 제 빛으로
땅 우에 만물을 안아 키웠더라.

허나 풀과 나무와 꽃가지에겐
그처럼 고마운 해'빛도
학대 받는 백성의 원한만은 풀어 주지 못
했으니
오, 태양보다 밝고 뜨거운
사랑의 빛발 뿌려 주는 로동당이여,

그대의 빛발 아래서만
굶주리던 《품팔이'군》들과 머슴'군들이
떳떳한 나라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착취와 빈궁은
이 땅에서 영영 사라져 갔습니다.

그대의 빛발 아래
아메리카의 성조기를 땅바닥에 짓밟았고
모진 고통과 슬픔을 넘어
페허 우에 새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 저기 쇠'물 폭포가 쏟아집니다.
이 나라 북변에서, 황해 기슭에서—
그 폭포, 그 무지개를 타고
무수한 기계들이 나래쳐 나옵니다.

항구를 떠나는 대형 화물선의 기적소리,
소소리 높은 언제가 일어서고.
자동차들이 달려 나옵니다.
비날론 공장이 대공에 솟았습니다.

흉풍 모르는 옥야 천리엔
수만 갈래 수로들이 출렁이고
뜨락또르 동음에 맞춰
오곡 백과 설레입니다.
무연한 초원에 가축 떼 흐릅니다.

그대의 빛발 아래
열 여섯 해 억세게 자란
울창한 공업의 수림 가지마다에
탐스럽게 무르익었습니다.
보기 좋은 일용품들과 눈부신 천필들이…
백화점과 매점들이 노상 들끓습니다.

당이여, 그대의 사랑 속에만
창문마다 랑랑한 노래 소리,
활짝 열린 교문마다엔
희망찬 학생 대렬이 흐릅니다.

그대의 빛발 아래
남녘땅을 지지누른 검은 구름 몰아치며
먼 동이 터옵니다
노호하는 남해 물'결에
미국 양캐들이 치를 떱니다.

풀과 꽃이 해'빛을 떠나
한시도 살 수 없듯이 당이여,
잠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대는 사랑 깊은 우리의 어머니!
앞길을 밝혀 주는 우리의 등대!

천리마의 나래 더 세차게
인민은 언제나 당을 따라—
통일의 문을 열겠나이다.
조국의 앞날을 떠받들고
력사의 큰 길로 나아가렵니다
공산주의 문을 두드리겠나이다
영원히 영원히 당과 함께.
위대한 태양과 함께.

거름' 더미는 쌀' 더미
건초 더미는 고기더미

원 광수 그림

《협력》

원 광수 그림

화력 발전—여보게! 혼자 힘들겠네, 내 좀 거들어 주지

서로 돕게 됐다

함흥시 미술 협동 조합
주 락겸 그림

제 4 차 당 대회를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룡성, 락원 기계 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생산 기업소, 작업반들에서는 벌써 년간 계획을 속속 완수하고 계속 증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고지를 점령한 선구자들

— 년간 계획을 완수한 당신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안 창수 그림

남조선 기행

허덕이는《섬유 도시》대구

1. 대구! 하면 사과와 직물, 한약재를 련상케하고 얼큰한 대구탕이 생각난다. 그러나 대구 사과의 본산지인 동촌은 미국놈들의 군용 비행장으로 쑥밭이 되고 오늘의 《대구 사과》는 외 지방에서 모여든 약간한 것 밖에 없다.

2. 한약재의 집산지로 이름 높던 남성로도 전에는 길'가에까지 감초 향기가 풍겨 나왔건만 지금은 미국제 약품에 몰리여 약전들도 쇠진해 버리고 말았다.

3. 그러면 그전날 《섬유 도시》로 이름 날리던 그 모습은 어떤가? 《경북 잠사 주식 회사》니 《중앙 생사 주식 회사》니 하는 뻔찌르르 한 이름들을 부친 공장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대개가 몇 간 집과 낡은 기대 몇 대로 겨우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였다.

4. 어느 공장 굴뚝 에서나 연기나는 것을 볼 수 없었는데 팔공산쪽으로 보이는 굴뚝 하나가 유달리 검은 연기를 내 뿜고 있어 그래도 저기서는 생산이 되는가 보다 했더니 한 로인의 말에 의하면 생활고로 자살자가 늘어서 화장터 굴뚝만은 언제나 쉴짬이 없다는 것이였다

5.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참상동 일대의 공장 비슷한 건물이 보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 달에도 5~6 개의 공장이 망하는 형편에서 여기에 남아있다는 공장들도 역시 같은 운명에서 불안에 휩싸여 있다.

6. 기업주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원료난, 자금난, 판로난에다가 나종에는 빚에 쫓겨 다니는 거지 신세란 것이다.

7. 최저 생활비의 3 분지 1도 못되는 기아 임금에 목숨을 걸고 있는 로동자들의 참상, 로동자들이 기계에 다쳐 팔 다리가 부러져도 치료비 하나 주지 않고 그날로 쫓겨 나서 죽기만 기다리는 억울한 형편—이것이 오늘의 남조선 로동자들의 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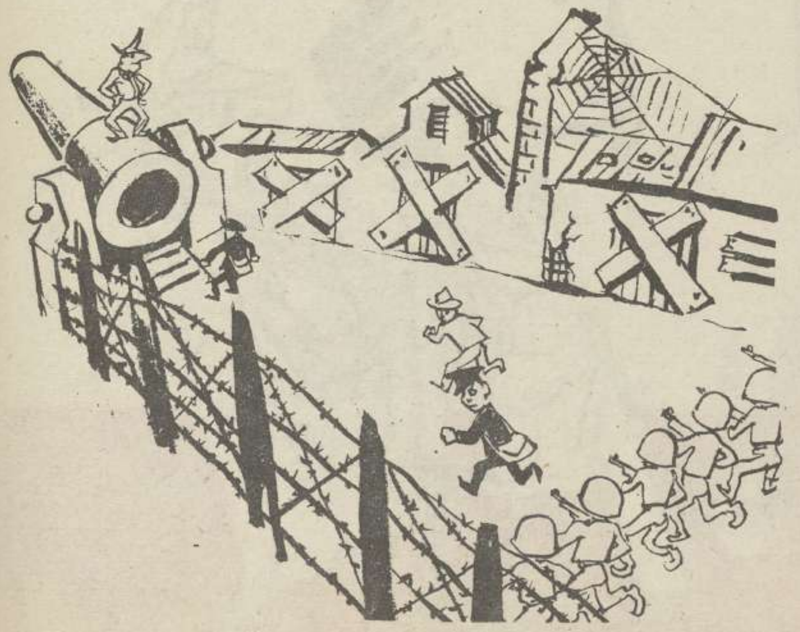
8. 우리는 몇 개 공장을 돌아 보고 대구 거리로 발길을 옮겼다. 남조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구 시내에서도 미제의 주구들은 《용공》이니 《좌익》이니 하는 구실을 붙여 무고한 주민들을 수다히 검거하는 광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였다.

조 명식 그림

무법 천지

백 인균 그림

강제 징집



박 승히 그림

요지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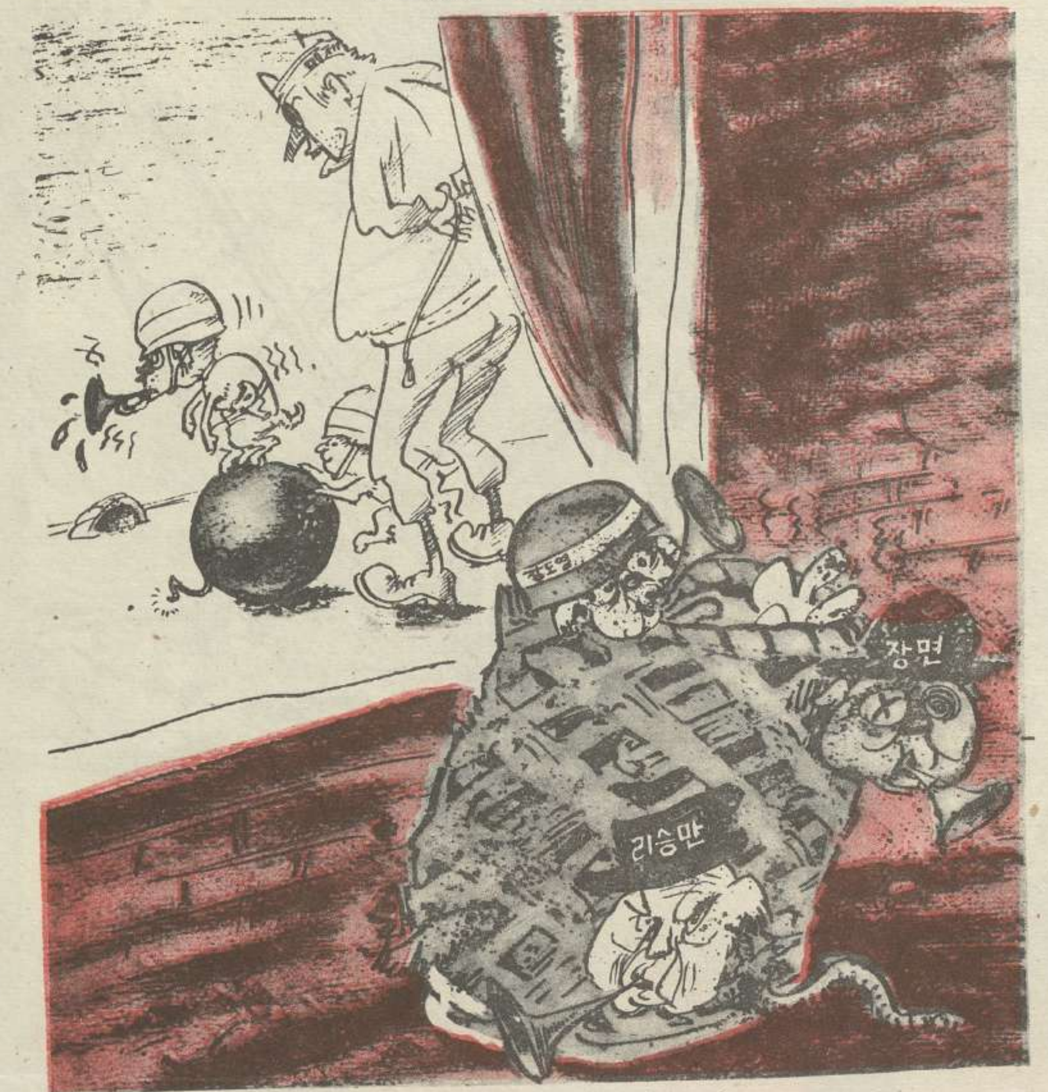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자기 무덤을 판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주둔 미군 병력을 증강하였으며 남조선을 하나의 병영으로 전변시키는 등 침략 책동을 감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멸의 길을 촉진하는 것이다.

조 명식 그림

운명지어진 나팔수들



백 인균 그림

그대와 꼭 같다

리 철히

출근 시간이 지난지 한 시간이 넘었으나 《공무원》들은 일에 달라 붙지 않고 잡담에 여념이 없었다.

《박군! 참 별스러운 세상이 돼서 함께 출근도 못하게 됐네》

《10 여 년을 김군과 함께 우리 셋이 출근 하군 했지만 세 사람 이상 모여 서지 말고 함께 걷지도 말라니 이런놈의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말 말게, 그들이 하는 짓이란 신통히 일본놈 망하기 직전과 꼭 같단 말이야… 아직 〈궁성 요배〉 대신 〈경무대 요배〉를 하란 말은 없어도 넝꾸단렌하란 대신 내핍 생활을 강요하지, 학도병과 징병 대신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군대에 끌어 가지, 인젠 학생들까지 머리를 중대가리처럼 빡빡 깎으라는 명령이야.》

《이제 또 창씨 개명하란 말이 나올지 누가 알아? 징용이요 하던 그대로 국토 건설이니 뭐니 해서 청장년들을 군사 시설 확장에 내몰지… 이놈의 세상이 언제 뒤집어 지려나…》

《이제 또 4. 19가 오겠지…》

《쉿! 처장님이 인제야 출근한 모양일세. 자네 고고꾸신민노 징까이… 아니 〈혁명 공약 6 개 조항〉을 다 외웠나?》

《암만 외워도 기억이 돼야지. 쉿! 처장님이 들어 오네》

강제 비육시킨 빠끄샤종 숫돼지에 군복 입혀 놓은듯 흉하게 살찐 《처장》이 뚱게뚱게 사무실에 나타났다.

《국민 의례》가 끝나 모두 자리에 앉자 처장이 만삭된 녀인 같이 배를 내밀고 일장 훈시를 시작하였다.

《에—또 국가 존망지추에 제군들의 각오 분루를 절망하는 바이요. 제군들은 미군과 국군을 적극 도와 공산주의에 대항할 힘을 길러내야 하오. 그러자면 우선 혁명 공약 6 개 조항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알겠나? 여보게 박! 혁명 공약을 한 번 외워 봐!》

박이 뒤통수를 긁으며 우물쭈물 일어났다.

《저……》

《저—가 뭐야 빨리 외워 봐!》

《…하나, 대한 민국 국민은…》

《뭐이? 이 자식아 그건 리 승만 때의 것이 아니냐? 그래 상기도 외우지들 못했단 말이야? 해직이다 해직!》

《나가라면 나가지 무서워 할 줄 아오?》

《저놈 봐라! 고약한 놈, 저 놈을 당장 체포해라! 저놈이 뭘 믿고 저렇게 배'장이 센가?》

옆에서 한 공무원이 말했다.

《저 사람의 형님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 있는 박 소장입니다. 일본 사관 학교를 나왔고 만주 국군 련대장을 거쳤고 미국에 실습 갔다 온 박 소장을 모르십니까?》

《엉? 그런 빽이 있었다는 걸 왜 진작 말을 안했어, 어서 저 사람을 도루 불러 들여라! 아니 내가 직접 모셔 들여 오지!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여보게, 박군! 아니 박선생……》

처장의 허둥지둥하는 꼴에 공무원들은 《해직》의 불안도 잊고 포복 절도하였다.

그런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처장》은 밖으로 달려 가며 《박 선생! 박 선생 잠간만……》 하고 웨치는 것이였다.

어용 화가

미제—보기 좋게 그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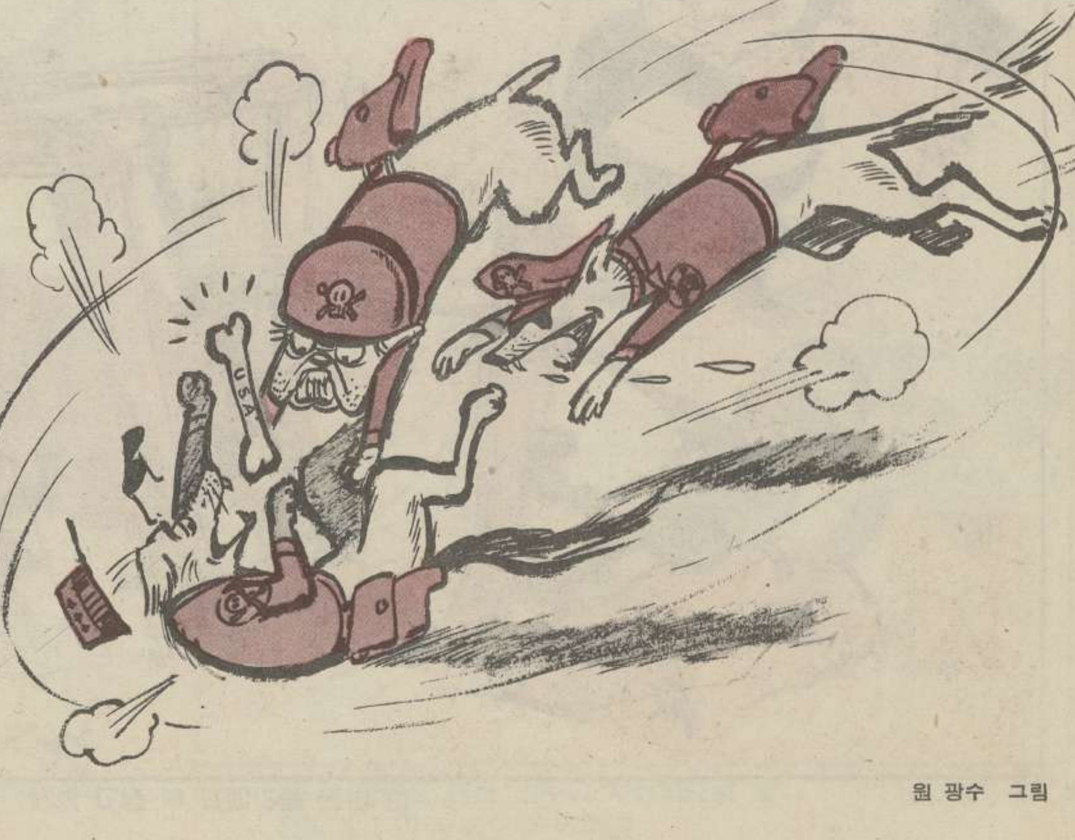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각설의 행각

박 승히 그림

개싸움

남조선《군사 정권》 지배층들 간에는 최근 권력 쟁탈을 위한 개 싸움질이 더 한층 격화되고 있다.



원 광수 그림

《재전 국민 백화점》

오 홍태

철갑모를 쓴 《군관》이 차지한 《시장실》에는 기압 바람에 직원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시장이 권총을 닦으면서

《단단히 규률이 섰거든, 하여간 군대건 민간이전 기압이 제일이야》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났다.

《엉 누구야,》

시장의 호령에 이어 문이 열리더니 안경을 코'등에 건 《상공 과장》이 조심조심 들어왔다. 리 승만 통치 때와 장 면 때를 걸쳐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과장》이다.

《헤헤헤, 시장님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과장》은 손을 비비며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뭐야! 차렷! 전시인데 맥 빠진 소릴 허구 있어 엉》

아직도 애티가 나는 《시장》의 호통에 머리가 희슥희슥한 《파장》은 또다시 머리를 발끝까지 숙였다.

《하앗, 황송합니다.》

《됐어 뭐야》

《시장》의 호령에 겁이 난 《파장》은 머리를 숙인채 간신이 대답했다.

《예, 시장님 명령대루 상인을 데려 왔습니다.》

《헤헤 됐어, 그래 그 상인이 군사 정권에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가?》

《예 시장님의 호출이라고만 알렸습죠》

이렇게 한 상인이 시장실에 안내되였다.

《시장》은 자기들이 항용 떠드는 식으로 《국가 재전》이 어떻고 하면서 연설조로 내려 엮더니 본론으로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재전 국민 백화점을 시 직영으로 만들고 재전 운동에 필요한 물건을 팔자는 거야》

《예? 재전 국민 백화점이요? 그런데 뭘 물건을 팔 것이 있습니까?》

《시장》은 빙그레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장—우선 하찌마끼(왜놈들이 머리에 동이는 수건)를 판단 말이야, 지금 내핍 생활을 요구하는 데 배 고픈자도 헐벗은자도 머리를 동이고 참고 견디도록 말이다. 그리고 지금 국군 징집 때에도 하찌마끼를 동이도록 허구 있지 않는가.

상인—배 고픈 사람이 쌀이 없이 하찌마끼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장—그런건 근심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 청년들은 모조리 국군에 끌어 낼 예정이니까 알겠는가, 앙.

상인—예.

시장—그리구 각반과 전투모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사게 하겠단 말이야.

상인—예? 전투모라니요?

시장—일본 사람들두 과거에 국민 총 동원 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반을 치게허구 전투모를 써웠거든, 우리두 그것만 해내면 대단한거야.

상인—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허구 다니겠습니까?

시장—당신은 쓸데 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군인이 돼서 그런지 몰라두 전체 국민에게 국군 옷을 입혔으면 좋겠단 말이야, 호령을 땅땅 치구 기압을 넣을 수 있게 말이야. 그리구 다음은 국방색 염색 공장을 시작하거든.

상인—예? 염색 공장은 뭡니까?

시장—국방색 옷을 입으라구 포고문 한장만 떨구면 되는거야, 그럼 경찰은 시장 골목에 앉아 흰옷에다 물'감칠을 하거든, 그렇게 되면 옷을 국방색으로 염색하려 올게 아니냐 말이다. 말하자면 전 국민을 국군옷으로 무장시키자는 거야.

상인—근데 그런 일이 간단히 되겠습니까?

시장—군사 포고가 못하는 일이 어데 있어 앙, 장교들의 위신이 부쩍 올라 갈건 뻔하지 않는가. 다음은 바가지 공장을 만든단 말이야.

상인—바가지 공장이 뭡니까?

시장—당신은 틈새를 모르는군.

상인—우리 같은게야 군사 정권의 일을 알 까닭이 있습니까?

시장—잘 들어 봐라. 옛날 일본 어른들도 국민 총동원 운동을 허더니 조선 사람의 놋그릇을 전부 회수하지 않았는가. 허니 우리두 앞으로 재전 운동에서 놋그릇을 회수할 건 뻔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면 밥그릇을 빼앗긴 사람들이 다른 건 살게 없으니까 바가지라두 살게 아니냐 앙.

상인—거, 그럼 왜놈 때 정치허구 같지 않습니까.

시장—그런 불순한 소릴하면 체포다. 앙.

상인—예, 미안합니다. 또 뭘 팔 것이 있습니까?

시장—녀자들에게 몸뻬를 입도록 포고가 나올텐데 몸뻬를 만들어 팔란 말이다. 앙, 이건 단단히 한 몫 보는 거다. 치마자락을 너덜거리는게 보기 싫드란 말이야.

상인—그러면 저두 한마디 합지요. 문패 전문 공장을 만드는게 어떻습니까?

시장—뭐, 문패?

상인—하하하, 옛날에는 나까무라상이요 가네야마상이요 했지만 앞으로는 월리암 김, 제임스 박하구 개명하라구 요구할거아닙니까?

시장—아니 이름을 고친단 말이야?

상인—미스터 시장 각하, 아직 정신 무장이 잘 안됐습니다구려, 미국의 제 1 방어선이 대한 민국이라구 하는 판인데 이름부터 미국식으로 고쳐야 충실한 미 국민이 되질 않습니까, 시장님을 놓구 보드라도 박 시장님 허기보다 미스터 월리암 박 시장, 하고 부른다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실 건 뻔하지 않습니까.

시장—헤헤헤, 앞으로 그렇게 될까?

상인—하하하, 시장님 생각해 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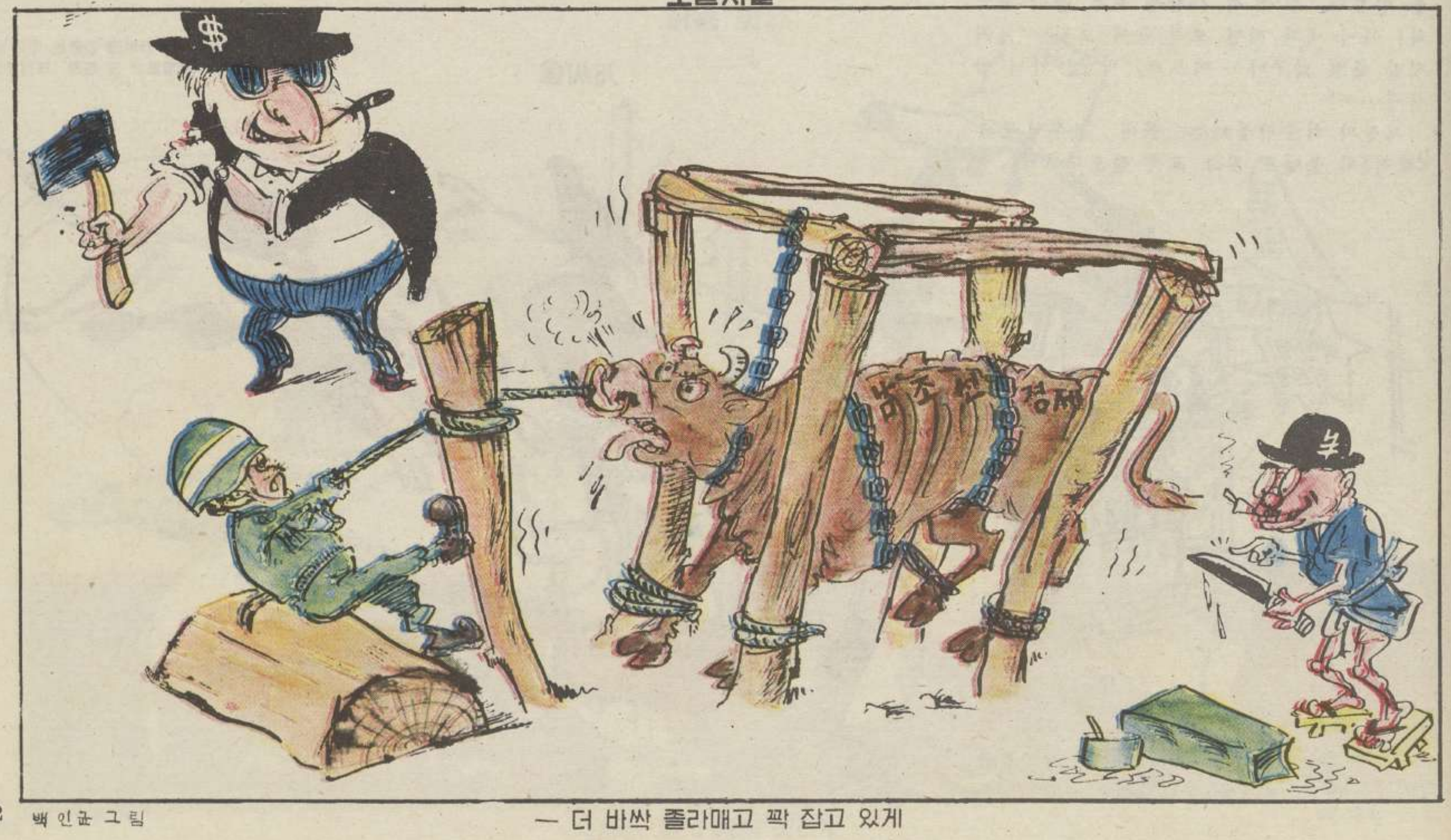
《시장》은 《상인》의 이러한 말에 몹시 호기심을 가지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상인》은 《시장》실을 나오면서 구역질이 나서 몇 번이고 침을 뱉았다.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력에 의거하여야 한다

안 창수 그림

도살자들



백 인균 그림

— 더 바싹 졸라매고 꽉 잡고 있게

남조선 지배층은 《기간 산업》을 건설한다고 떠들고 있으나 이러한 빈 구호로써는 파국에 처한 남조선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에 가서 고기 잡는 격

이만한 고기, 꼭 잡아 오겠다

백 인균 그림

쇠퇴하는 《자률적 발전》

남조선 지배층은 《중소 기업 자률적 발전》이란 기만적 구호 하에 자연 도태에 의한 중소 기업의 청산 정리를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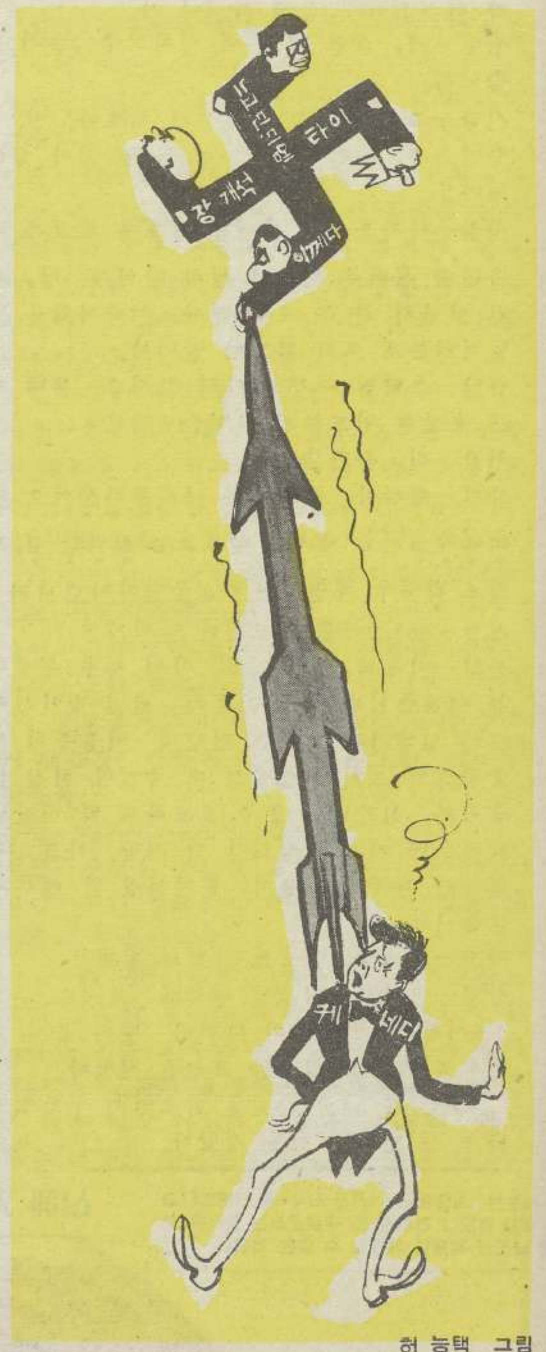
아니, 모이도 물도 안주고 자률적으로 발전하라니 아주 죽으란 말이군!

백 인균 그림

엄연한 두 현실

홍 종호 그림

위험한 곡예



허 능택 그림

미제의 사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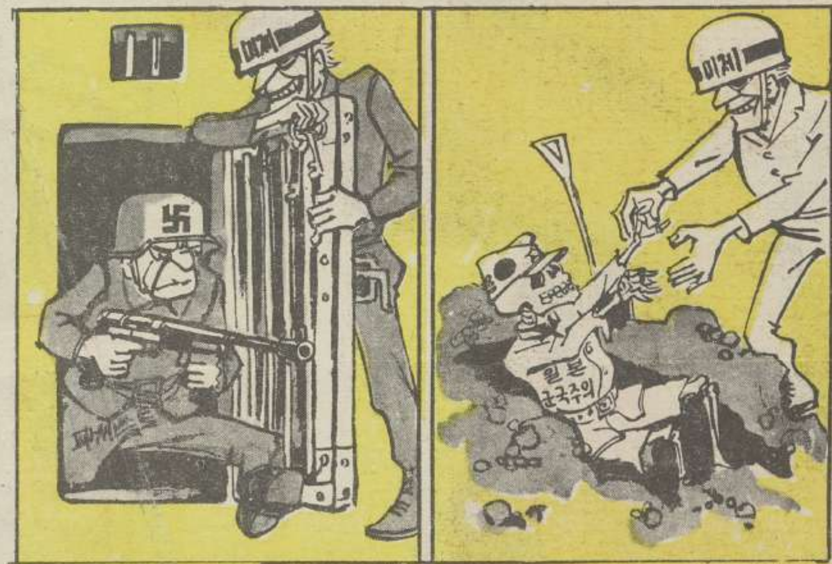
삯전은 톡톡히 치를터이니 빨리 건느도록해!…

최 영근 그림

피비린내 나는 미국 침략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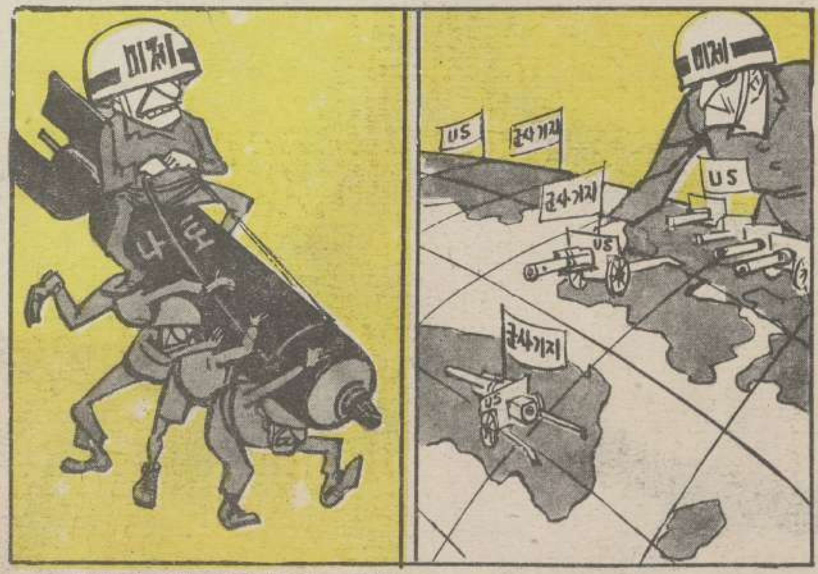
1) 제 2 차 대전 시기 미제는 전쟁 종결의 마지막 기간에 참전하여 전쟁의 참화를 입지않고 전승국의 자리를 무난히 얻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쟁 리윤을 획득하였다.

2) 전후 미제는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힘의 립장에 선》 자기들의 침략적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였다.



3) 미제는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독 나치스 분자들을 석방 옹호하며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서독을 자기들의 침략적 돌격대로 내몰기 위하여 갖은 흉책을 감행하였다.

4) 미제는 아세아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재생시키며 군수 공업을 부흥시킴으로써 일본을 위험한 군사적 도발파 모험의 발원지로 전변시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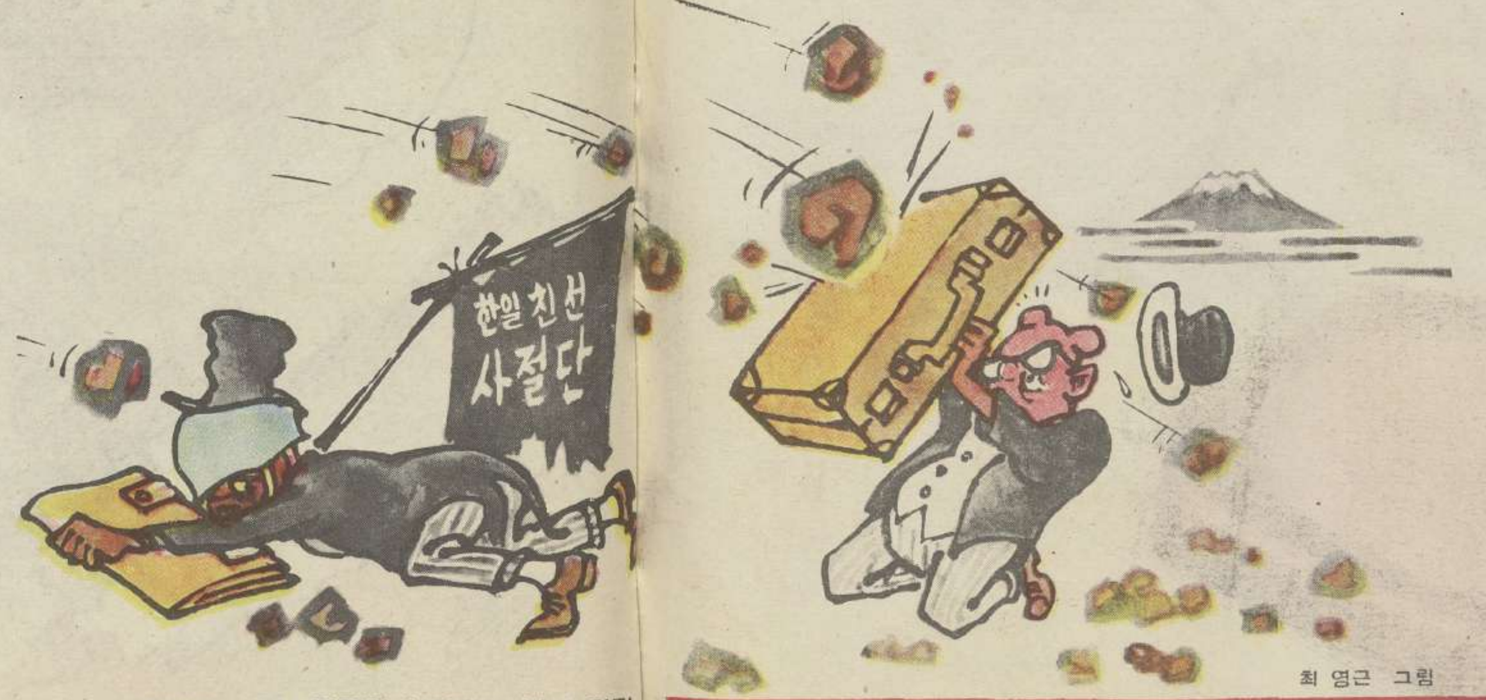


5) 《랭전》과 《전쟁 접경》에서의 줄타기 정책의 조직자들과 고무자들은 쏘련과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기 위하여 《나토》를 비롯한 군사 뿔럭을 조작하였다.

6)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에 예속되여 있는 나라들을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 자기의 군사 기지망으로 얽어매 놓았다.

안 창수 그림

《친선 사절》 봉변도



—여보게, 군사 정권의 사절답게 복보 전진하라구…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5647
발행 1961. 8. 20
(값 40 전)

8280 хвльсаяь

앞못보고 덤비는 자!

《서부 렬강 우선 미국은 지금 사회주의가 세계에 확고히 수립되여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엔. 에쓰. 흐루쑈브)

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최 영근 그림